황금돼지해 고객 사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여자들이 결혼하는 남자는 따로 있다!
광주지사 062-228-3222

제1771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3월 31일 (음력 2월 13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31(土)	4/1(日)
비온뒤 갬	구름많음
12 / 15℃	5 / 16℃

News

- 강진청자 세계에 홍보 ②
- 조선대 강단 선 김병조씨 ③
- 안시현 첫날 단독 선두 ⑱

Jeollado

- 그 사람-허경만 前도지사 ⑦

Entertainment

- 토크 퀸들의 즐거운 입담 ⑧
- 국내 배우들 해외진출 붐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쑥 ⑬

우람학원 창학 5가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한미 FTA 반대 시위 한미 FTA 협상 마지막 날인 30일 전국적으로 반 FTA 시위가 열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허연) 주관으로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반 FTA 시위에 참가한 농민들이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벼를 뿌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미 FTA 철야협상 진통

의약·방송·통신 등 쟁점은 대부분 해소

쇠고기·자동차 접점 못찾고 대치 지속

'선 타결 후 조문화'로 가닥 잡을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운명이 걸린 30일 최후 철야협상이 핵심 쟁점인 쇠고기와 자동차에 걸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한미 양국은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섬유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면 30일 자정께 타결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었으나 31일 새벽 2시 현재까지 벼랑끝 대치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협상 시한인 31일 오전 7시까지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회의론과 낙관론이 교차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이 협상 시한 내에 타결을 선언한 뒤 각론의 조문화작업은 추후에 진행하는 '선 타결 후 조문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미 양측이 협상 시한 내 타결 합의에 이를 경우 조문화 작업을 위한 세부 협의 절차에는 48시간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4월 1일로 예정돼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일자도 2일께로 순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30일 밤 "현재 각자 입장에서 이것만은 국익 플러스 여론 때문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딱 전선을 명확히 한 채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전망이 정말 어렵다. 항상 마지막 현안 하나 때문에 99%가 물건너 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정부가 협상 결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토니 브레토 미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메일 성명에서 "협상이 잘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몇 시간내에 진전의 신호가 없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양국 협상단은 30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장관급 협상을 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을 조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FTA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쟁점현안에 대한 최종 협상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열고 막판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양측 협상단은 타결에 앞서 자국 정부가 제시한 최종 맨데이트(위임 협상안)를 토대로 마지막 조율절차를 거치며 이 절차가 끝나면 김 본부장과 바티아 부대표가 협상장에서 성명을 통해 한미 FTA의 타결을 공식 발표한다.

양측 협상단은 전날까지의 협상을 통해 의약품과 방송·통신 등 서비스, 금융, 투자, 무역구제 등에 대한 이견은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지난해 2월 미국 워싱턴D.C의 미 의회 의사당에서 협상 출범 선언이 이뤄진지 1년 2개월만에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2012 엑스포 여수로

BIE실사 D-9

염원 담아 전국 누빈다

사이클 투어 내달 3일~12일…10개 도시 순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전거로 전국을 순회하는 '트윈 전국 사이클 투어'가 오는 4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서 펼쳐진다. 또 남해안권 시·군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국제박람회 사무국(BIE) 현지 실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30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트윈 전국 사이클 투어' 발대식이 열린다. 이번 투어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에서 여수까지 전국 10개 도시에 걸쳐 펼쳐진다.

사이클 투어 경유지인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전주 등 5개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마련된다. 여수에 도착하는 오는 12일에는 BIE(국제박람회 사무국) 실사단과 만나 국민의 염원을 담은 상징 기념물도 전달할 예정이다.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세계박람회에 대한 전국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전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과 국민의 염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해안권 6개 자치단체 대표들은 30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남해안 중심 시·군 단체장 정책 간담회'를 갖고 '2012 세계박람회가 남해안 발전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4월 BIE실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오현섭 여수시장을 비롯해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현복 광양부시장, 이종신 고흥 부군수, 김석훈 경남 사천 부시장, 이재룡 남해 부군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4월 11일 해상에서 열리는 실사단 환영리셉션에 남해안권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을 초청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작년 고위공직자 58% 재산 1억 이상 늘었다

지난해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면〉

30일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재산변동 공개 대상자 1천52명 중 지난 한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전체의 86.7%인 912명에 달한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37명으로 13.0%에 그쳤다.

특히,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1%(611명)가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단의 나등급(옛 2급) 이상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공무원은 전체 대상자 625명의 90.4%인 565명에 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93명의 경우 지난 한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84.6%인 248명이었고, 줄어든 의원은 43명(14.6%)에 그쳤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73명(59.0%)에 달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가치 변동 상황이 반영되면서 재산이 무려 7천325억원이나 증가, 전체 재산총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9천974억원에 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